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10공구

발파 피해 대책 세워달라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10공구 공사현장에서 발파로 인한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주민들은 인근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지난 2월부터 140여 회가 넘는 발파와 대형 덤프트럭의 잦은 통행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2년여 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쿵쿵'거리는 발파소리와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대형 덤프트럭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라며 "일부 주민들은 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9월 목포~광양간 고

순천 별량 주민 덤프트럭 잦은 왕래 불편 호소

주택 외벽 금 가고 농작물 분진 피해 보상 요구

속도로(10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별량면 운천리 마을 앞 2차선 도로는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이 도로는 마을 사람들로 주로 이용해왔으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 수백 번 왕복하는 바람에 주택에 금이 가고 한우 불임현상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연이어 터졌다. 여기에서 분진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주민 K씨(여)는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해 주택 외벽이 금이 간데다, 수퍼마켓의 영업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겹쳐지며 별량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6천여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해둔 상태다. 9공구 공사 구간에 있는 A 야만장의 경우 터널공사와 관련된 발파로 인해 밭장어가 폐사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지난달 3일 조정위는 공사주체인 한



농협 광주본부 모내기 봉사

내기 등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중순) 임직원 20여명은 1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화정동 등의 농가를 찾아 모내기, 못자리 철거, 손모내기 등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여수 '찾아가는 수산행정' 어민들 호응

남면·삼산면 등 도서지역... 민원 접수·처리

여수시가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찾아가는 수산행정'을 펼쳐 지역 어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남면·삼산면 등 도서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수산사무소, 수협 등과 합동운영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5개월간 수산관련 현장 민원 84건과 애로사항 79건을 해결해 직접 배를 타고 나와 시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소해야 했던 어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합동 운영반은 ▲어업허가 및 어선 관련 등 민원 접수·처리 ▲최신 수산

정보 제공 ▲달라지는 법규·제도 교육 ▲중·양식 선진 기술보급 ▲어류 질병 검사 등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수산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어민들을 위한 감성 행정서비스를 펼쳐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줄이어

2010년까지 100억 조성 지역인재 육성 계획

고흥군에 교육발전기금 기탁이 줄고 있다. 2일 교육관에 따르면 고흥 초·중·고교 32~39회 모임인 어울회(회장 박영만)는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206만8천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

탁했다. 또 재경향우회 고경희 김동현 회장이 2일 교육관, 재경 부산향우회가 300만원, (주)선명산업개발 김상현 대표가 200만원을 특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은 출향 향우

와 주민, 공직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5월 현재 54억여원이 조성돼 2010년 100억원 조성 목표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올해 장학사업으로 고흥고 등 관내 7개 고등학교에 2억2천만원, 고흥영재교육원 3천만원 등 2억5천500만원을 지원했다. /고흥=주지중기자 gju@

수산물 사러 오세요

함평 직판장 5일 개장

함평군에 심심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산물 직판장이 문을 연다.

함평군은 2일 "어촌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함평읍 석성리 주포항에 건립한 수산물 직판장이 오는 5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주포어촌계가 운영하는 이 직판장은 주포항 물양장에 전체면적 1천342㎡, 지상 1층, 12개 동 규격 사십비 1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이곳 직판장에서는 게르마늄 등 미래할이 풍부한 청정해역 함평만 앞바다에서 나오는 각종 수산물을 연중 값싸게 살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직판장 개장으로 연간 70여인의 수산물 판매해 6억여원의 소득이 예상된다"며 "예전에 포구로 명성을 떨치던 주포항을 살리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판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순천농협 예수금

전남 첫 1조원 달성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이 최근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로부터 '예수금 1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순천농협은 지난 4월 24일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한지 40년만에 전국 1천185개 지역농협중에서 10번째, 전남 158개 지역농협중 처음으로 '상호금융예수금' 1조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농협은 지난 2008년 9억원 달성탑 수상에 이어 예수금 1조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어 지역 최대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해남농가 마늘 수확 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문찬석)과 농협 해남군지부(지부장 이길재) 임직원들은 최근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박순봉씨 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작업을 도왔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계에 알리라"

독립기념관 순회 교육

순천 연향초등서 전시

독립기념관(관장 김주현)은 3~5일 전시·교육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행사를 순천 연향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

독립기념관이 주최하고 순천교육청이 후원하는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순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에 찾아가기 힘든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행사다.

주요 내용은 국민 역사교육의 장인 독립기념관 소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전시를 비롯해 '나도 꼬마 독립운동가!' 체험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강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라! ▲독립자금을 마련하여 인성학교를 세워라! ▲선서문 함호를 풀어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자를 도하라 ▲광복이 되어 조국 독립에 앞장서라 등이 마련된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특강이 준비돼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Large table containing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 Gwangju, including Jeonnam, Gwangju, and Jeonbuk. Columns include district name, address,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